

샤머니즘과 빈집, 그리고 문학

박형준 | 시인

“만약에 귀가 떨어지면 고양이 오줌을 컷구멍에 부어라, 그러면 들린다.” 최근 짧은 시인 문태준의 시를 읽다가 샤머니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그의 고향은 김천에서 11km 정도 떨어진, 40여호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50살 정도의 어른이 막내뻘에 해당될 만큼 노인들만 산다.

그런데 이곳에는 우리가 미신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서두의 인용구 말고 인상적인 시구 중 하나는 “지계가 집 쪽으로 받쳐 있으면 집을 떠메고 간다”이다. 이 동네 사람들은 지계가 집을 향해 받쳐 있으면, 누군가 지계에 집을 싣고 정처 없는 곳으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아들이 아프면, 무당에게 아들을 판다. 무당의 아들이 되게 해 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무당을 흥본 사람에게 무당이 화를 냈더니 그집 황소가 죽어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한다. 이 늙은 농촌 공동체는 샤머니즘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샤머니즘, 혹은 늙고 버려진 세계는 ‘빈집’에서도 발견된다. 빈집이란 누군가 떠나고 없는 곳이다. 황폐하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 서서히 붕괴해가는 빈집은 농촌 공동체의 운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그런데 빈집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나는 중견 시인 최하림의 시와 짧은 시인 문태준의 시를 읽으면서 빈집에 대해서도 샤머니즘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

“집들은 지붕이 기울고 담장이 무너져 내렸다 / 검은 새들은 지붕으로 곳간으로 담뿔으로 / 기어들어갔다 / 검은 새들은 빈집에서 꿈을 꾸었다”(최하림의 <빈집>에서).

“흔적은 얼마나 관능적인가 / 까마귀가 내려앉은 부적 위를 지나, / 통통한 거미 문설주 저편으로 금줄을 친다 / 처마 밑 땅대까지 차올라 / 밤새 등근 알을 낳는 닭”(문태준의 <빈집·3>에서).

최하림 시인에게 빈집이란 모두가 떠난 고요의 다른 이름이면서, 동시에 침묵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소리내며 파동치는 곳이다. 아무도 없는 그 빈집이 울리는 ‘파동’이 짧은 시인 문태준에게는 관능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그에게 빈집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교태를 부리는 관능적인 여인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나갈 줄만 알고 들어올지 모르지만, 빈집은 뭔가가 들어와서 이곳이 다시 찾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버리고 떠난 농촌 공동체의 샤머니즘, 그리고 그 늙은 세계의 대표적인 상징인 빈집 속에서 울려나오는 ‘파동’과 ‘관능’은 새삼 우리에게 근원을 생각해 한다. 그리고 그 근원이야말로 문학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진 문학의 위기감은, 점차 문학이란 운명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빈집’처럼 돼간다는 우려의 목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문학은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지 누군가 떠났다고 해서 푸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났다고 하더라도 문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어서 들어오라”고, 우리가 농촌 공동체의 샤머니즘과 빈집에서 배워야 할 것도 이런 지혜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이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